

2008 새해설계 ④

포천시 재향군인회 회장 이광호

올해 안에 향군회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 계획

청소년병영체험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해야



럼 표창을 받았으며 이는 국가안보 선양을 위한 대국민 계도 홍보활동 유공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포천여자중학교 학생들에게 병영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포천여자중학교교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또한 친북세력을 완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확고히 하기 위해 울곡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연 2회에 걸쳐 회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안보교육을 위해 특별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에 나서기도 했다.

이 회장은 한미연합사해체 반대와 전시작전권 전환유보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포천시에서 3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내 전국 시군 단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 안보유관단체를 구성해 회장을 맡았으며 여기에 이광호(사진) 포천시재향군인회 회장은 올해로 임기를 마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현재 향군회관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재임기간 중에 대동

청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주요계획으로는 향군중흥의 해를 맞이해 전직지 탐방에 나설 계획이다. 월남 참전지를 방문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가안보 및 대국민 계도 및 홍보활동을 위해 21세기 울곡포럼 및 안보교실을 개최하고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만화 6.25전쟁 바로 알리기를 널리 배포할 계획 이다.

이 회장은 회원들에게 "국민의 신뢰와 사랑 받는 안보역량을 축적하고 읍면동회에 이르기까지 젊은 종신 회원의 확보와 여성회원을 포함한 젊은 회원의 확보와 정예조직 구축하는데 회원들이 앞장설 것과 대국민 계도 및 홍보활동을 주도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좌파 10년 동안 너무 해이해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 시민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포천시에 대해 이 회장은 "우리 향군에 대해 너무 홀대한다"며

"시청에 구걸하듯이 해야 된다. 포만 의식해서 돈 나눠주고 있다. 청소년병영체험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여 승공사상을 고취하고 국가관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도 포천시가 최근 포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을 제정해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1일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8번째로 통과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포천시장은 재향군인에게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포함 수, 불우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그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지금 내가 할 일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제2차 세계대전 때였다. 독일군의 공습으로 인해 런던시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폭탄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심술궂은 히틀러는 폭탄이 시한장치를 해 두었다. 그래서 폭탄이 언제, 어디서 폭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욱 불안했다. 폭탄이 떨어지자마자 폭발한다면 공습경보가 끝난 후에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

련만, 어떤 것은 30분 후에 어떤 것은 몇 시간 뒤에 터지기 때문에 사회는 더욱 불안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때에 귀족이었던 썬더 포크 공작은 기도하는 중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운전수와 비서와 함께 시한 폭탄을 분해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폭탄이 떨어진 곳을 찾아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무려 34개의 시한 폭탄을 분해 처리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이 35개개의 폭탄을 분해하기 위해 애드렐을 때 그 폭탄은 터지고 말았다. 순식간에 그들은 산산이 부서지는 몸이 되어 버렸다.

그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죽었으나 수많은 런던의 시민들을 구했으며 불안과 초조 속에 떨던 시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일을 했다.

그들에게는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원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소명감이 있는 공동체와 나라는 결코 쇠

하지 않고 반드시 새로 운 도약이 있다.

몇 일전(2.9일)한민족의 자존심의 상징인 국보1호 승례문이 전소되었다. 방화범은 민족의 격동기를 살아온 70대 노인이다. 그는 현장검증에서 후안무치(厚顔無恥)의 말을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망발이었다. 온 국민의 마음을 분노케 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지금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

우리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 하신다. 디데전서 4장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거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고

문의) 031-532-2489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②

북한 토지의 사유화 방안(2)



서희석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③ 사유화 범위

북한 토지의 사유화를 위하여 위에서 고찰한 원칙들 즉, 과거 재산권 문제의 선해결과 평등 원칙의 존중 그리고 단계적인 사유화는 북한 토지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의 인정 논리로 통일 한국의 토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사유화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즉 주택, 개인 이용 농지, 상업지의 사유화는 가장 먼저 조치되어야 하고 공업지 및 기타 지역은 단계적으로 사유화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유화를 배제하는 경우도 필요하다.

개인의 주거 지역은 인간 생활의 최소 생활 공간으로 이는 개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거를 통일 후 재편성함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주거 지역에는 최우선적으로 사유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북한의 주택 소유제도를 보면 헌법 제20조에 의하여 국가 소유, 협동단체 소유로 보이며, 개인의 사적 소유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 주민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 등급의 주택을 임대 형식으로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 보급률은 65·70%(간부급 100%, 노동자 50%) 정도의 수준으로 100·140만 채가 부족한 실정이다. 부족한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의 건설을 통하여 이를 무주택 북한 주민에 분배하여 주어야 하며, 본래는 장기임대주택의 규정을 원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통일 정부

가 주거비를 감면하고 점차적으로 사유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남한의 무주택자가 북한이라는 이주시 그 권리가 함께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남한처럼 주택의 개념은 부족 대까지 포함할 것을 말하므로 통일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도 이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 북한 농지는 국가와 협동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다. 다만 협동농리 내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소유물에 대하여 소비 목적이 한정되어 개인 소유가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생존권에 따라 사유화를 배제하는 경우도 필요하다. 그러나 협동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유화시 현재 정착하고 있는 권리자에게 사유화시점이 타당하다.

북한의 상업 지구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상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지위는 피고용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를 농부에 대응하면 상업 지구는 곧 생존권과 직결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나 상업 지구는 주거와 농지 구별의 수적으로도 개인 소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 주민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 등급의 주택을 임대 형식으로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 보급률은 65·70%(간부급 100%, 노동자 50%) 정도의 수준으로 100·140만 채가 부족한 실정이다. 부족한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의 건설을 통하여 이를 무주택 북한 주민에 분배하여 주어야 하며, 본래는 장기임대주택의 규정을 원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통일 정부

제 부흥에 기여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방안이 타당하다. 기업가는 구조 개선을 통하여 생산력 향상을 꾀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공장의 노동자에게 귀속시켜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수록 통일 정부의 경제 부흥에 일조하리라 본다. 공장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보하되, 공장의 구성원인 노동자에게 공장에 대한 권리(주식 배당)를 분배함으로써 권리에 합치된다고 본다. 공업 지구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대한 사유화 조치를 취함이 타당하다.

북한의 자원 개발과 경제 개발을 위하여 경제특구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유화를 유보하고, 북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어 점차적으로 경제 개발에 참가하는 기업의 자본투자에 의하여 사유화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지정에는 합리성과 적정성 그리고 적법성이 적용되어야 하며, 경제특구의 이익은 북한 지역 경제 회생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시설이나 국가 문화재 지역 그리고 공민 및 환경 보존을 위하여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사유화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들 지역 내의 북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이주와 생계의 수단을 마련해 주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포천소방서 노인전용 실버구급차 운영

119구급차와 별도 운영 사전에 예약 이용

"몸이 불편해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병원 못가신 어르신들 실버구급차 이용하세요"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노인전용 실버구급차(실버구급차)를



포천소방서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노인전용 실버구급차(실버구급차)를 운영 노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운영 노인분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노인전용실버구급차는 기존 구급차와 달리 65세이상 무의탁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으로 비용급환자이며 노인분들이 병원 진료후에도 집까지 모셔다 드려 기존구급차와 달리 차별화를 두었다.

실버구급차는 일반 119구급차와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1~2일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포천소방서에서는 작년 7천5백여 건을 구급출동하여 이중 1천5백여 명 65세이상 노인들을 병원까지 이송하였으며, 실버구급차 운영으로 이중 상당부분 비용급환자를 실버구급차로 대처할 수 있어, 긴급을 요하는 구급수요에 더욱더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보형 서장은 11일 실버구급차의 무사고 기원제를 올리는 자리에서 마을 리(동)장들 지역주민에게 안내문을 보내 지역 노인들의 이용을 적극 당부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육군 제3739부대 영북면 부소천 하천 주변 대청소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소재한 육군 제3739부대에서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영북면 운천리, 소회산리 마을에 소재한 부소천 하천 주변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생활쓰레기를 군 장비 300명과 군 트럭 5대를 동원하여 대청소를 실시했다.

첫째, 셋째주 금요일에 영북면과 협조하여 쓰레기 방치지역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 본연의 임무 외에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군 장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소재한 육군 제3739부대에서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영북면 운천리, 소회산리 마을에 소재한 부소천 하천 주변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생활쓰레기를 군 장비 300명과 군 트럭 5대를 동원하여 대청소를 실시했다.

포천문화재 합동으로 특별점검

포천소방서 승례문 화재를 계기로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서울 승례문 화재를 계기로 포천시 군내면소재 포천향교 등 중요 문화재시설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등 유지관리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목조건축물에 대해 구조 및 현황 등을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는 물론, 소방훈련을 통하여 승례문과 썬 화재발생시 자체소화시설이 소화기밖에 없어 쉽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특별점검을 통하여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군내면 직두1리 마을에서는 무자년 새해를 맞아 마을 어르신 100여명을 초청하여 떡국을 대접해드리는 경로잔치를 2월12일 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군내면 직두1리 경로잔치 개최

포천시 군내면 직두1리(이장 이만구, 부녀회장 한영례) 마을에서는 무자년 새해를 맞아 마을 어르신 100여명을 초청하여 떡국을 대접해드리는 경로잔치를 2월12일 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넘치는 군내면에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미소를 지었다.

군내면 직두1리 마을회에서는 이번 행사가 1회성이 아니라 매년 연례행사를 개최하여 경로요청 사상을 함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새인물 박찬성 가산면이장협의회장

“和睦과 단합으로 지역발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다. 특히 박 회장은 고령화시대에 동네의 노인 분들을 어른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하고 월2회 이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먼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19일 가산면 남녀새마을지도자와 이장협의회가 한 마음으로 땀 흘리며 대화를 실시해 화합과 단합의 장으로 만들었던 박 회장은 "23개리 23명의 이장의 뜻을 모아 가산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산면은 23개리 81개반으로 3천688세대 8천90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등록외국인은 2천381명이 살고 있고 기업체는 2천474개 업체가 조업을 하고 있다. 가산면 법정리는 감암리, 마산리, 방축리, 금현리, 정교리, 마천리, 우금리, 가산리 등이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재래시장 공용소화기 기증

포천소방서 일동재래시장 화재예방 위해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화재 발생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포천시 일동면소재 일동재래시장에 대해 공용소화기를 기증했다.

간담회를 통하여 숙식집포 부근에 공용소화기를 배치해 화재발생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소화기를 기증하게 되었다.

현재 일동재래시장은 약 40여개 점포가 밀집해 있으며 20여명이 숙식을 겸해 살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관계자는 "아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가 문 닫힌 점포내에 있어 사용하기가 곤란하였는데 이번 공용소화기로 인하여 우리시장이 더욱더 안전하게 됐다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포천소방서는 시장관계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소방서는 화재발생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포천시 일동면소재 일동재래시장에 대해 공용소화기를 기증했다.